

경기불황... 지방은행, 수도권 틈새시장서 돌파구 찾는다

DGB대구銀 은퇴금융인 35명 채용
서울·수도권에 30명 이상 배치키로

JB금융 지주소속 34명 자회사 발령
33명은 전북·광주은행으로 진출

BNK경남은행 수도권 3개점 개점
수도권 진출 中 소매금융 강화

지방은행이 서울·수도권 영업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은행의 주 수익원이던 지역중소기업 대출로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시중은행의 지역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수익창출을 위한 지방은행의 수도권 영업경쟁은 불가피한 선택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수도권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은퇴 금융인을 채용한다.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퇴직금융인 35명을 채용해 2인 1조 형태로 법인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지원서를 접수 받아 현재 면접까지 진



(왼쪽부터)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본사 건물 전경.

/각사

행된 상태”라며 “오는 5월부터 서울 28명, 대전 2명, 부산·울산·경남에 5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진출에 영업력 있는 은퇴금융인 30명(85.5%) 이상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도권 영업비중 확대는 비단 대구은행뿐만 아니다. 최근 JB전북·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JB금

용도 최근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주소속직원(71명) 가운데 절반가량(47.9%)을 자회사로 발령했다. 발령된 직원은 총 34명으로 JB우리캐피탈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은 전북은행(21명)과 광주은행(12명)으로 진출됐다.

JB금융관계자는 “이동한 직원은 영업력 확대를 위해 은행에 배치됐다”며

“이동한 직원 대다수가 전북·광주은행 수도권 지점으로 발령된 상태로 수도권 영업비중을 강화할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도 지난해 8월 마곡(서울)·위례신도시(성남)·동탄역(화성) 지점을 개점하고, 올해는 수도권 지점을 통한 소매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신규점포 개설보다 기존지점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강남, 마곡, 위례, 동탄 지점을 통해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소매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이 수도권 영업망 확보에 주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은행 수익성 하락이 꼽힌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해 성장을 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기업대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비율제도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각각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 지방은행이 지역의 특수성과 업황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시중은행보다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수도권 영업망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지역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수도권 영업 성과에 따라 실적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해 대구은행의 순이익은 2348억원으로 전년보다 20.2% 감소하고, 경남은행의 순이익은 23.7%(1690억원) 줄었다. 반면 이들보다 수도권 영업비중을 확대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순이익은 각각 1005억원, 153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3.5%, 54.5% 증가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불황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컸던 지방은행의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며 “더구나 시중은행의 지역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지역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수도권 지점을 확대하거나 수도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휴대폰요금 납부 내역으로 신용등급 UP”

금감원 Q&A

사회초년생 신용등급

Q. 사회초년생이라 그동안 신용등급을 모르고 지냈습니다. 우연히 조회해 보니 예상보다 낮아서 놀랐는데요. 나중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용등급을 관리해두고 싶은데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사회초년생 처럼 금융거래 신용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신용을 평가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을 수 있습니다.

평소 휴대폰요금이나 공과금을 꾸준히 연체 없이 납부해오셨다면 그 자료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해보세요. 구체적으로는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나 도시가스,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등을 최근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한 자료를 신용조회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성실 납부 기

간’이라고도 하는데, 연체 없이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신용평가에 가점이 쌓입니다.

카드를 사용하시나요?. 다른 금융생활에서 연체 기록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경우에도 신용평가 가점이 쌓입니다.

체크카드는 월 30만원 이상 6개월간 혹은 1년 동안 사용할 경우 최대 40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평가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는 감점에도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할부나 한도 초과 기록,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하세요.

신용등급은 누구나 4개월마다 한 번씩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지키미, 올크레딧, 싸이렌24 등 신용조회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를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김희주 기자 hj89@

진옥동 “경쟁자 아닌 고객에 집중해야”

(신한은행장)

신한은행, 2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

“직원 역량강화는 은행의 역량 확장”

신한은행은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 연수원에서 2019년 2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진옥동 행장을 비롯한 임원, 본부장, 주요 부서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1분기까지의 성과를 리뷰하고, 2분기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전략을 공유했다. 또 ‘새로운 시대의 신한다움’에 대해 영업현장과 본부의 집단지성을 모아 변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 및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진 행장은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고객에게 집중해야 한다”며 “철저히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을 통해 경쟁자를 앞서가는 프론티어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용인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진행된 2019년 2분기 임원·본부장 워크숍에서 ‘새로운 신한다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한은행

(개척자)가 아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크리에이터(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곧 신한은행의 역량을 확장하는 것”이라며 직원들의 가치를 높이는 역량 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진 행장은 현장에 참석한 임원·본부장들에게는 “직원들이 돈키호테적인 사고를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발한 발상과 새로운 도전을 권장하는 문화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신한다움이다”고 마무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l@

NH스마트뱅킹 고객 ‘한편 로그인 이벤트’

NH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은 다음달 말까지 NH스마트뱅킹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한편(한 번에 편하게) 로그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H스마트뱅킹에 로그인하면 이벤트 응모권을 1매 제공하고,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응모권을 2매 제공한다.

이벤트 응모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1등 갤럭시S10(2명), 2등 미니공기청정기(10명), 3등 영화관람권 2매



(100명), 4등 아이스크림(888명) 등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중 NH스마트뱅킹에 공지하고,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롯데카드 “고용보장 중요... 非카드사 선호”

>> 1면 ‘롯데카드 새 주인...’서 계속

관건은 인수가격이다. 롯데그룹이 희망하고 있는 인수가는 1조5000억원이지만 실제 참여자들이 제시한 가격은 이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롯데카드의 적정 인수가로 1조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승열 하나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19일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그룹 비은행 부문 확대를 위한 M&A(인수·합병) 자금은 현재 증자 없이 1조원 정도 쓸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장도 변수다. 롯데카드는 고

용보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롯데카드 내부에서는 하나금융보다는 한화그룹으로의 인수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인수·합병에 있어 내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고용 문제”라며 “아무래도 기존 카드사가 있는 기업에 인수되는 것보다는 카드사가 없는 기업으로의 인수가 고용보장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가 하나금융이나 한화그룹 중 어디로 매각되든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겠지만 하나금융으로 인수될 경우 구조조정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화그

룹은 카드사가 없지만 하나금융은 하나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롯데카드는 조직규모에 비해 직원 수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카드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 수는 1694명으로 업계 3위인 KB국민카드(1598명)보다 많다. 하나카드(751명)에 비해서는 2배가 넘는다.

반면 롯데카드의 평균 연봉은 5800만원으로 카드업계 평균(9100만원)과 하나카드의 평균(9800만원)을 웃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롯데카드와 하나카드가 합병될 경우 겹치는 부분이 많아 구조조정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롯데카드의 고용보장 문제가 매각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주 기자